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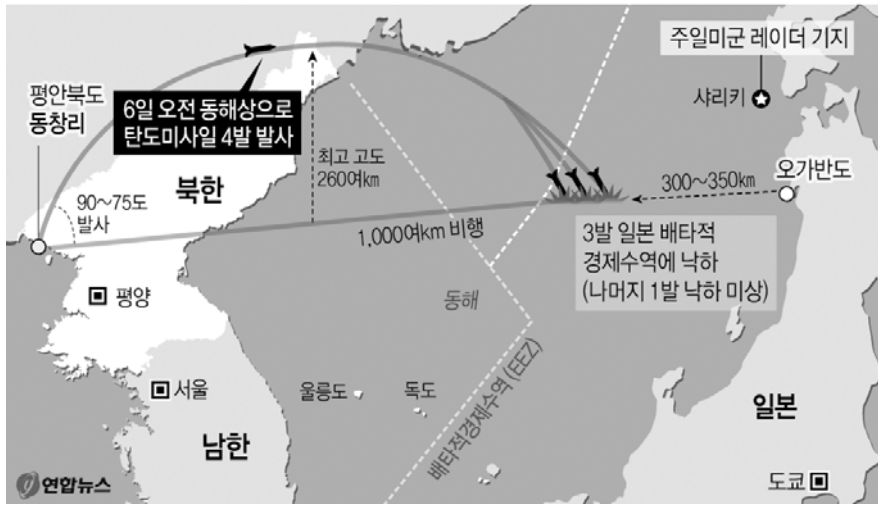
동시다발 공격 맨 사드로는 방어 한계

북한, 탄도미사일 4발 발사

사거리 1000km… 日 수역 겨냥
높이 쓰면 남한 위협 가능

북한이 6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정당성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이례적으로 4발을 거의 동시에 발사하면서 요격을 위한 유도탄 숫자가 정해져 있는 사드의 한계도 동시에 부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날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은 최고 260km를 수구쳐 1000km 정도를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이나 노동 미사일(사거리 1300km), 스커드-ER(사거리 1000k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통상 주일 미군기지를 겨

북한,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냥한 무기로 여겨지지만 고각으로 발사한다면 한반도 남쪽을 위협하는 무기도 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사거리를 600km로 줄였고, 지난 1월 발사한 북극성 2형도 역시 고각발사로 500km만 날아갔다. 동창리에서 수도권까지는 300km,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도착하는 부산까지는 600km 떨어져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춰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처럼 여러 발을 약간의 시차를 두고 거의 동시에 발사한다면 사드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드 1개 포대는 통상 6개의 발사대로 구성되며, 각 발사대에는 유도탄이 8개씩 장착된다. 유도탄 48발이 적 미사일 요격을 위해 대기하는 것으로, 요격률 100%를 가정해도 이 이상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면 모두 요격할 수 없는 셈이다. 사드 유도탄은 재장전하려면 30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1000기 안팎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스커드 계열(400여기)과 노동(300여기)이 대다수를 차지해 충분히 동시다발 공격이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은 있으며 이를 모두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사드가 배치되면 방어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드 보복’ 중국 “롯데 떠나라”

중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시위가 비이성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의 한 쇼핑센터에서 롯데그룹 계열사의 소주상품인 ‘처음처럼’을 쌓아두고 중장비로 공격하는 과격한 시위가 벌어졌다.
6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와 중국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단의 시위대가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의 신정원자스디아광장에서 ‘처음처럼’과 롯데 음료상품을 박스 채 쌓아두고 이를 중장비를 동원해 짓밟았다.
웨이보에 올라온 시위 영상을 보면 이

쇼핑센터 직원으로 보이는 중국인들이 “롯데는 중국에서 나가라”, “롯데 상품을 모두 빼고 불태우자”라는 붉은색 플래카드를 들고 처음처럼 등 롯데 상품을 쌓아두고 롯데 반대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중장비가 롯데 상품을 그대로 짓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펼쳐진다.
중장비 앞쪽에는 “중국에서 떠나라”라는 플래카드도 걸렸다.
최근 사드로 인해 반한 감정이 격화되면서 해당 쇼핑센터가 과격한 시위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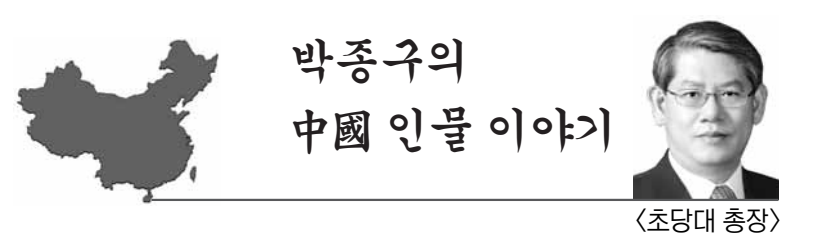


짓밟힌 롯데 제품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한 쇼핑센터 앞에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등 롯데제품이 짓밟히고 있는 모습이 지난 5일 웨이보에 게시되다. /연합뉴스

‘전쟁가능국’ 욕심 아베, 조기 총선 속도

다음 달 중의원 해산 가능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당 규정 개정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 올해 4월 중의원 해산설이 부각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지난 달 중순 당 간부와 직원에게 중의원 조기 해산에 따른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조기 중의원 해산설이 확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베 총리에 등을 돌린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이케 지사는 아베 총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지난 달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청장 선거에서 고이케 지사 측의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고이케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7월 2일 열리는 도쿄도의회 선거가 치러지면 자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북제 군주 교환

고환(高歡, 496~547)은 북위, 동위의 실권자로 북제 왕조 건국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사실상의 창업 군주로 평가된다.
효문제(高澄)는 낙양 천도를 단행하고 적 극적 한화정책을 추진했다. 낙양을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성행하고 선무제에서 효문제까지 20여년간 변했다. 그러나 지나친 한화정책과 급속한 문치주의는 북방 민족 출신의 북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종실과 후궁, 환관 등을 둘러싼 궁중정치의 혼란이 심화되었다. 우리의 변은 중앙 군인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이어 변경의 육진의 난으로 사실상 북위의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계호족 출신의 이주영은 휘하에 고환, 후경 등을 거느렸고 6진의 난 진압의 공으로 정계의 실력자가 되었다. 530년 입

문제를 맞이한 우문태의 서위와 양분되었다. 고환은 수도를 업으로 이전했다.
그는 오랜기간 북방에 거주하여 선비족의 하옥문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6진의 난을 거치면서 세력을 갖춘 무장들과 함께 연합정권을 구축하였다. 이들을 훈귀(勳貴)라고 불렀다. 훈귀에는 북진 출신의 호족 또는 호족화된 한인이 많았다. 그의 통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북의 귀족들의 협력을 유도하면서 강력한 군국주의 체제를 구축해야 했다. 그러나 하북, 하남의 귀족들은 문치주의에 익숙해 있어 그의 군국주의 노선에 마냥 협조적일 수는 없었다. 특히 동위는 강남의 양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역도 비교적 활발해 남조의 화려한 귀족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문치주의와 군국주의의 균형을 어떻게 적절히 유지하느냐가 동위 왕조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는 저지통감에

진국 기초 마련…무장 연합정권 구축

결한 이주영을 효장제가 주살함으로써 그의 권력 독점은 종식되었으나 이에 반발한 이주영의 조카 이주조가 군사를 동원해 효장제를 죽이고 새 황제를 옹립했다.
고환은 북위 6진의 하나인 회산진 출신의 선비족 계통으로 이주영 밑으로 들어갔다. 여러 싸움에서 두각을 나타내 이주조로부터 결출한 장군으로 인정받아 진주자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반란군 20만명을 통솔하여 식량 확보를 목적으로 하북성 신도로 진군했다. 신도의 유력 세력인 고건 형제 등은 그와 연대하였다. 양 세력의 연합이 이루어졌고 북위 황실의 원장을 황제로 옹립했다. 이주조군과 고환군은 하북성 업의 교외인 하흥산에서 격돌했는데 결과는 이주조군의 대패였다. 이주씨의 횡포에 불만이 누적된 주변 세력들이 등을 돌리고 고환 세력에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낙양에 입주한 고환은 원수를 황제로 옹립하니 효무제다. 그는 산서성 진양에 막부를 세워 조정을 좌지우지했다. 장안에는 6진의 하나인 무천진 출신의 우문태가 독자적 세력을 구축했다. 534년 효무제가 고환의 전횡에 못이겨 우문태쪽으로 탈주했다. 이에 원순건을 황제로 옹립하니 효정제다. 북위는 이를 계기로 효정제를 받드는 고환의 동위와 효

“성품이 침착하고 치밀해서 종일토록 군업해 사람들이 속마음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 침략을 꾸미는 것이 신과 같았으며 군대를 통제함에 법령이 엄속했다. 듣고 판단하고 명확하게 살피니 속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신하들이 기꺼이 따랐다고 한다.
537~543년 수차례 우문태의 서위와 격돌했다. 534년에는 낙양 교외 망산 싸움에서 크게 이겼으나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이 소진되던 동안 토벌에는 나서지 못한채 동위와 서위는 장기간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하루는 아들들의 재주를 시험하기 위해 불러모아 뒤엎진 삼살 한 뽕치식을 나누어주고 폴도록 하였다. 다른 아들들은 모두 한 울씩 뽑아내느라 진땀을 흘렸으나 둘째 아들 고양은 칼로 삼살을 베어버리고 어지러운 것은 베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의 장차 큰일을 할 인물이라 생각했다. 고환 사후 받아들여 고건이 대장군으로 동위의 실력자가 되었으나 549년 8월 난경에게 살해당했다. 태원공 고양은 부대를 지휘해 변고를 진압했다. 그의 정신과 풍채가 빼어나고 부드럽고 엄숙하며, 말이 민첩하고 막힘이 없어 모두들 따랐다고 한다. 550년 승상 제군왕이 되었다가 양위를 받아 황제에 즉위하니 북제의 문제이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 남동측 주거용오피스텔(5층)
토지 712.9㎡ 건물 1,545.04㎡ 감평가 2억3천 ▶ 최저가 14억9천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평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부근 상가건물(4층)
토지 865㎡ 건물 1,514.31㎡ 감평가 20억7천 ▶ 최저가 14억5천
- ★ [건물]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교육시설 현게스트하우스 낙안읍성안근
토지 13,179㎡ 건물 1,302.76㎡ 감평가 16억2천 ▶ 최저가 7억2천8백
- ★ [중고시설]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개인사찰
토지 1,587㎡ 건물 514.19㎡ 감평가 17억1천 ▶ 최저가 7억6천6백
- ★ [공장] 광주 서구 동천동 유촌마을 복서측 인근
토지 1,226㎡ 건물 323㎡ 감평가 12억1천7백만 ▶ 최저가 6억8천2백
- ★ [숙박시설] 전남 화순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토지 3,234㎡ 건물 4,281㎡ 감평가 37억8천7백 ▶ 최저가 9억9천2백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평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밀집지역 사무나·헬스 6층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4억
- ★ [건물] 광산구 공황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6층 병원건물
(한방·요양병원적합)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중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상5층건물 대지 476㎡ 건물 1,236㎡ 매매 24억
(보2억7천만 월1천1백5십만 용6억9천만 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지하~5층 상가건물 중앙아동병원 인근
대지 277㎡ 건물 604㎡ 한방·요양병원최적지 매매 37억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영암 신북면 신북면사무소인근 일반상업지역
대지 2,535㎡ 무인텔, 대형마트 최적함부지 투자가치높음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 [토지]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담 1,700㎡ (도로접)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 가능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건물] 광산구 첨단롯데마트부근 지하~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 3,943㎡ 보5억 월3천만 매매 60억 (협의가)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가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